

# 사랑으로 녹이고, 행복으로 감싸고...겨울이 따뜻해요

광주신세계갤러리, 26일까지 일러스트레이션 특별전 'Dearest: 초대하는 마음'



가을작 '너와 나의 크리스마스'

결을 지켜주는 가족과 친구, 바쁜 일상 속 피 한 잔의 여유, 평생 기억될 여행지 풍경처럼 소중한 순간을 담아낸 일러스트 작품들이 저마다의 따뜻한 겨울 이야기를 간직한 채 관람객들과 만난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26일까지 일러스트레이션 특별전 'Dearest: 초대하는 마음'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가을, 노마, 드로잉메리, 오리 여인, 일리아 밀스타인, 테라오카 나츠미 등 독창적인 작업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국내외 작가 6인으로부터 펼쳐진다.

이들의 작업은 일러스트레이션을 기반으로 드로잉·페인팅·오브제·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다. 전통적 의미의 삽화는 물론 현대미술 전시와 구찌, 구글 등 세계적인 브랜드와 협업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가로지르며 따뜻한 감성을 더해왔다.

이번 전시는 컬렉팅을 위한 아트 커머스 플랫폼 '하입엔(hypeN)'과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하입엔 소속 작가 4명이 참여한다. 이들

작가 6명 저마다의 따뜻한 겨울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위로 건네 '하입엔'과 협업...아날로그 감성 자극, 매력적인 아트상품 선봬



노마작 '선물'

의 작품은 하입엔 앱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원화와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아트상품을 함께 선보이며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한다.

전시는 소원도에서 방문객들을 반기는 두 작가의 작품으로 시작한다.

눈 내리는 하루를 만끽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보내는 자신만의 시간, 친구와 반려동



일리아 밀스타인작 'Writer in the Snow'

물이 함께하는 웃음으로 가득 찬 모임 등 일리아 밀스타인(Ilya Milstein)이 섬세하게 표현한 일상들은 서재에 촘촘히 꽂힌 책처럼 다채롭다.

반짝이는 모습으로 모두를 환영하는 오리 여인(The Lady Duck)은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저무는 하늘 위 떠있는 별들을 모아 겨울

의 긴 어둠을 밝게 비추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에게 응원과 위로를 건넨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노마(NOMA)와 함께 일상의 추억으로 시작되는 환상적 풍경으로의 상상 여행이 시작된다. 불투명한 수채화와 정교한 붓 터치로 완성된 작품은 밝게 비추는 달빛처럼 희망을 담고 있다.

가을(Gawool Lim)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마주친 순간을 수채 일러스트에 담았다. 선명한 색채와 빛나는 조각들로 채워진 가을의 작품은 언젠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겨준다.

보드라운 파스텔을 재료로 포근한 그림을 그리는 테라오카 나츠미(Teraoka Natsumi)의 강아지들도 놓칠 수 없는 매력을 전한다. 폴짝이며 우리 곁을 지켜주는 친구와 함께한 시간들이 한 권의 앨범처럼 엮여 다기온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경쾌하게 그려내는 드로잉메리(drawingmary)의 작업은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게 한다. 투명하고 차가운 겨울부터 꽃들이 피어날 다가올 봄까지, 특유의 온기가 담긴 색감과 필체로 담아낸 풍경은 감상자를 미소 짓게 한다.

전시와 함께 지역작가 정승원과 협업한 크리스마스 아트월도 따뜻한 예술의 힘을 선보인다. /최명진 기자

## 디지털 사회, 인간과 예술 가치 재조명

김호빈 개인전, 8-21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기억과 기록, 사라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탐구하며 디지털 시대 인간 경험의 즉흥성과 유동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김호빈 작가 개인전 'Film-Literature / Archival Ghost'가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두 개의 독립적인 작업을 하나의 개인전으로 결합한 것으로, 디지털화된 현대 사회에서 예술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작가는 기록된 과거와 현재의 흐름 속에서 기억과 사라짐, 그리고 예술적 자유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다.

첫 번째 작업인 'Film-Literature'는 요나스 메카스의 필름 다이어리에서 영감을 받았다. 작가가 여행 중 사용했던 기기를 통해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삶의 순간들을 4채널 비디오 설치 작업으로 담아냈다.

이 작업은 소설 창작 방식 중 '팬서(pantser)'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플롯터(plotter)가 철저히 계획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팬서는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작가는 계획 없는 삶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즉흥적 서사를 구성한다.

해당 작품은 2022년 겨울부터 시작된 작가의 개인적 여정을 담고 있으며,

2025년 겨울까지 이어지는 장편 다큐멘터리로 완성될 예정이다.

두 번째 작업 'Archival Ghost'는 기록과 보존 속 사라짐의 아이러니를 탐구한다.

자크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 개념에서 출발한 이 작업은 비디오 영상이 아닌 작가, 장소, 날짜, 설명만으로 구성된 메타데이터를 활용해 작품의 본질을 탐구한다. 이는 디지털 및 제도적 시스템이 예술을 정의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관객은 메타데이터의 빈 공간을 통해 아카이브가 예술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과정을 체감하게 된다. 이 작품은 기록이 무엇을 기억할지 결정하고



'Still Shot 2'

동시에 무엇을 망각할지 형성하는 아카이브의 능동적 역할을 성찰한다.

특히 디지털과 제도적 시스템이 예술의 덧없음과 즉흥적 본질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부각하며, 아카이브의 부재를 통해 관객들에게 보존과 소멸의 긴장을 묻는다. /최명진 기자

## 새해맞이 '보배섬 국악나들이'

국립남도국악원, 6일부터 선착순 60명 접수

국립남도국악원이 '2025 새해맞이 보배섬 국악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되는 '보배섬 국악나들이'는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진도에서 우리 소리와 함께하는 여행'을 주제로 기획됐다.

'여행'이라는 주제에 맞춰 진도의 전문 문화해설사와 함께 소치 허련 선생의 생가인 '운림산방'을 탐방하고 '남도전통미술관'에서 서화 체험을 진행한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특별 공연도 준비돼 있다.

참가자들은 서화 체험을 통해 자신

만의 부채를 만들고, 국가무형문화유산 강강술래를 배워본다. 진법과 장단 놀이를 배우며 현대에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대동놀이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체험은 2024년 갑진년을 보내기 위한 해넘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는 해돋이 감상을 위해 세방나조와 진도 오봉산을 방문한다.

체험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60명을 접수받는다. 사전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38)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